

시원탕 기억사진관 독후 활동지



사십 년, 오십 년 된
우리 마을의
역사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

박현숙 글 | 이명애 그림
노란상상

★ 교과 연계

국어 3-1 1. 삶을 보다. 4.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 3-2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사회 3-1 1. 우리 고장의 모습

사회 4-1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사회 4-2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

1. 우리 주변에 ‘~리단길’, ‘~로수길’로 불리는 지역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예) 가로수길, 샤희로수길, 황리단길, 망리단길 등.



2.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가게들을 떠올려 보세요. 또, 이러한 가게들 중 사라진 가게는 없었나요?

예) 이발소, 사진관, 오락실, 수선가게 등.

[책을 읽은 후에 생각해 보아요]

1. <시원탕 옆 기억사진관> 이야기 속 사진관 할아버지(지훈이 할아버지)는 사십 년 동안 한 곳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었어요. 하지만 정든 가게를 닫고 떠나야만 했지요. 할아버지가 가게를 닫아야 했던 사정은 무엇이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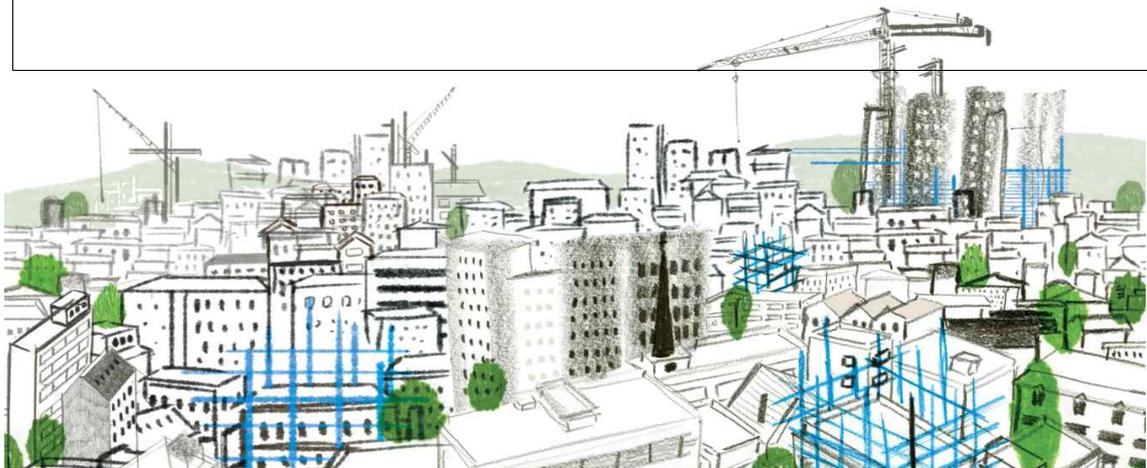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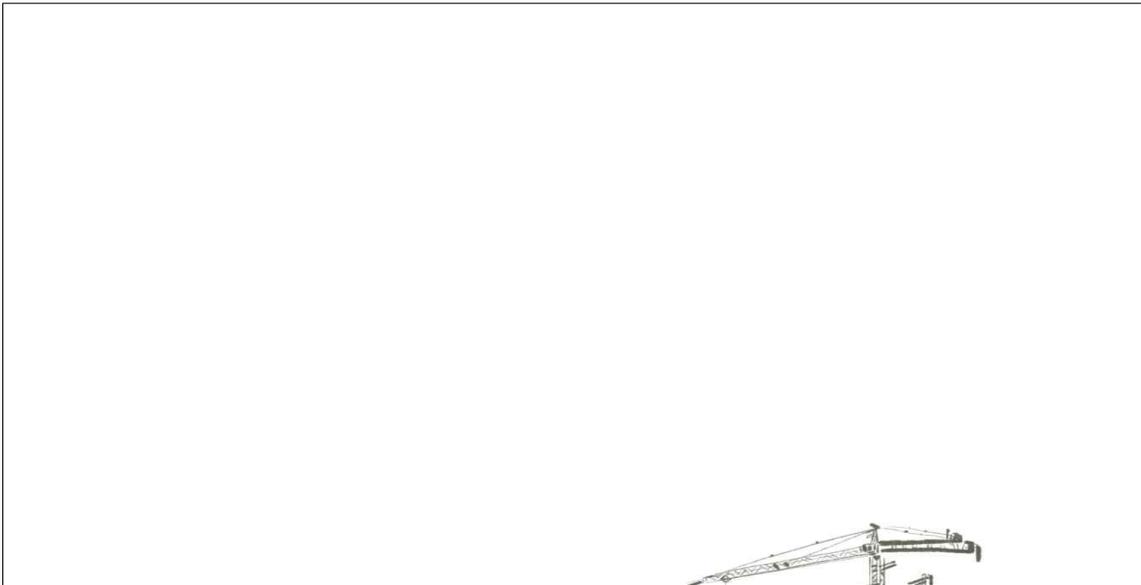


2.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상권', '도시 재생'과 같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세요.

3. 무분별한 지역 개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것, 마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유를 들어 의견을 발표해 보세요.



[같이 읽어 보면 좋은 기사 읽기]

기사 1) 40년 정든 사진관 밀어내는 망리단길 ‘싫어요’



문닫는 행운의 스튜디오 자리,
월세 200만원 인형뽑기방 입주.
‘맛집 많아 망리단길’
소문나며 외지인 발길만큼 임대료 급상
승.

주민들은 마을 지키기 서명 운동 “이달
30일까지입니다. 40년 동안 도와주신 고
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행운의 스튜디오’
를 운영하고 있는 사진사 김선수(68)씨

가 최근 가게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글을 내걸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만 22년째, 망원동에 있던 기간 전체를 따지면 40년간 쉽 없이 사진기 셔터를 눌러왔던 그가 남긴 짧은 두 줄의 작별 인사다.

김씨는 주민들 사이에서 ‘동네 터줏대감’으로 꼽힌다. 그는 “돈벌이는 시원치 않았지만 추억과 보람을 재산이라 여기며 자리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기에, 지금까지도 아기 백일과 돌 사진 가격을 22년 전 가격인 1만원에 묶어두면서 ‘마을 사진사’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그는 7일 “망원동 땅 한 평(3.3㎡)이 1만원 할 때 가격”이라며 “돌 사진 찍은 동네 아이들 커가는 걸 보는 재미도 컸다”고 했다.

그런 그가 정든 망원동을 떠나야 하는 건 ‘감당 못할’ 임대료 때문이다. 작년 5월 새로운 건물주가 오면서 보증금 4,000만원에 매달 80만원을 내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홍대 상권이 연남동과 상수동을 지나 망원동까지 확장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맛집 많은 곳’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그만큼 건물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

그의 얼굴엔 짙은 그늘이 졌다. 김씨는 “임대료를 적당이 올려 재계약을 했으면 했는데, 사실 나한테는 제의조차 없었다”며 “이 동네 임대료가 몇 배씩 뛰어 다른 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 가게 자리에는 인형뽑기방이 새로 들어올 예정이다.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월세를 김씨보다 2.5배 많은 200만원 내는 조건의 계약이 맺어졌다.

인근 주민들은 “남 일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동네 한 자리에서 28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심모(50)씨는 “올해만 해도 새로 계약한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미용실 손님 임모(62)씨는 “정(情)만큼은 흘러 넘쳤던 동네였는데, 돈 때문에 그간 쌓아온 정까지 다 뺏기는 느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1980년대까지 망원동은 큰 비만 오면 곳곳이 한강물에 잠겼던 동네라, 서로 ‘물 퍼주며’ 쌓은 공동체 의식이 남달랐다고 그들은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40년간 '행운의 스튜디오'를 운영해 온 사진사 김선수씨가 7일 자신

의 청년 때 사진을 가리키고 있다.

주민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김씨처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웃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씩씩해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용산구 이태원동(경리단길), 종로구 청운효자동(서촌) 일대 주민들이 겪었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동지 내몰림 현상)'의 아픔을, 이제 이곳 망월동 주민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는 '망리단길(망월동과 경리단길의 합성어)'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망월동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1일부터 SNS를 중심으로 '망리단길 싫어요'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조영권(42)씨는 "1,000명 정도 서명이 모이면 각 언론사에 망리단길이란 단어 사용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망리단길이란 유행 같은 단어가 돌면서 지역공동체가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2017년 03월 8일,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 2) 반짝 흥행에 월세 뛰고 쓰레기·사생활 침해...‘망월동의 비명’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월동 이른바 '망리단길' 주변 주택가에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쓴 '컵 버리지 마셈' 팻말이 서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 경고문에는 "카페 손님은 해당 매장 앞에서 사진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화분 파손이 잦아 적발 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인근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분을 훼손하는 일이 잦아지자 주민이 경고문을 만들어 붙인 것이다.

이 동네에서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아무개(61)씨는 "금요일만 되면 지하철 6호선 망월역 앞 거리가 젊은 사람들로 붐비는 변화가가 된다. 예전에 조용하던 동네가 산만해져서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네가 '발전'이란 걸 하면서 이곳 월세가 뛰어서 세입자들은 은평구 증산동이나 응암동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 임대료가 올라 당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60만원이었던 가게들이 지금은 월세를 100만원 넘게 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씨는 "문제는 이렇게 인기있는 시절이 얼마나 가느냐다. 언제 인기가 식을지 모르니 상인들이 다들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망리단길이란 이름은 망월동의 '망'자에 용산구 이태원2동의 명소인 경리단길을 합친 말이다.

가게 단명 시대 살아가는 '핫플레이스' 주민들 주택가에 '사진촬영 금지, 쓰레기 금지' 붙여. "월세 뛰어 인근 지역으로 이사가는 주민도" '망리단길' 말 나온 지 얼마 안 돼 검색 하향세.

"일순간 동네 소비하고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 망월동 포은길 인근 이른바 '망리단길'의 한 주택가 대문에는 "쓰레기 투기와 흡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나붙어 있었다.

인근의 홍대, 합정동, 상수동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젊은 소상공인들이 망원시장 뒤 주택가로 카페나 식당 등 점포를 옮기면서 형성된 지역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올라 평일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지만, 정작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등도 비슷하다. 평범한 주거지가 인기 상권이 되면서 몰려드는 인파로 쓰레기와 소음, 사생활 침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객들의 도를 넘은 행동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지역에 오래 살아온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 탓에 지난해 망원동 주민들은 ‘망리단길 부르지 말기 운동’까지 벌였다. 약 2만4천명이 가입한 페이스북 페이지 ‘망원동좋아요’를 중심으로 망원동 일대가 떠들석한 상가 일색으로 변하지 않길 바라는 주민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도에 표기된 ‘망리단길’ 지명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망원동 상가 임대료가 폭등하고 주민들은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음식점과 카페가 늘었지만, 생활편의시설은 줄었다”며 “새로 진입한 젊은 상인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오랫동안 장사하고, 모두가 오래오래 살고 싶은 동네이고 싶다”고 외쳤다.

주민들의 노력 덕인지 최근 1년 사이 ‘망리단길’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썸미 활동가는 “떠오른 지 얼마 안 된 망리단길이 하향세다. 소셜미디어에서 ‘망리단길’이란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예전만 못하다. 상권의 인기가 줄어들어 상인들이 이 지역을 떠날지 고민하는 시점이 조만간 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것은 2011년 이후 급속도로 상권이 확장된 경리단길과 망리단길, 최근의 (서울 중구) 중리단길까지 이어지는 ‘단명 상권’의 한 단면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책 <골목사장 생존법>을 쓴 김남균 그문화갤러리 대표는 “이들 지역을 보면, 고객들이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한 동네를 소비한 뒤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분석했다.

망리단길 등 새 상권이 순식간에 떴다 지는 현상은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의 그늘이고, 해당 주민들의 고민이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펴낸 <서울시 상업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정책적 쟁점> 보고서를 보면, 경리단길의 음식점 수는 2012년 55개에서 2014년 5월 145개로 폭증했고, 주민등록 인구는 1만1300여명에서 약 480명이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주거지의 관광지화로 외부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면 기존 거주민이 줄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한겨레신문>, 2018년 08월 07일,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